

와서「아서라 그진 어린식놈이야 무슨죄가잇느냐 그러치마는 요놈이이런  
 케잘입은 비단옷도모다 초산벽성의 파글근것이니 이것이나마 입혀 보낼것업  
 다」하고 달녀들며 입을웃을 다벗기고 지나가는 거지아희의옷 허진틈사이셔  
 히이가 더진방아쌍이에 보리알제듯흔것을 밧고아 입혀서 싸에 밧이붓지안토  
 록 드러닉웃는다 그디경당하는 영창의마음에는 지그는죽인티도 겁날것업스  
 되 무죄훈부모가 참혹히죽는것이 비홀티업서 통이훈싱각에「나도 압록강에나  
 가서 기어코우리부모 드러안져계신 두쥬라도붓들고 죽으리라」하고 구렁언덕  
 을헤아리지아니하고 업드러지며 잠바지며 압록강을 향하고가는티 읊디셔 압  
 록강이 몇리는되든지 밤셔도룩가다가 어느곳에다드르니 우에도하늘웃고아티  
 도하늘웃흔 물빛치보이는티 스면은 져스하고 넓고넓은 만경창과에 총스홀별  
 빛만 반짝스스할며 오렐흔여울소리가 솟히 조상하는듯 홀썬이오 자괴부모는  
 어티로 썬는것는지 알슈업는지라 홀일업셔 언덕우에서서 창자가 썬어지는듯  
 이올며 몇번이는 강물노 썬러지라고하다가 다시싱각하고「죽드리도 썬는가는  
 두쥬라도 보고죽으리라」하야 물결을싸라 홀업시느려간다 몇참이는가고어티  
 썬지나왔던지호곳에 이르러서는 밧도불웃고 드리도압홀썬아니라 여러늘굴머  
 셔 괴운이시진하야 정신일코 스장에넘어젖스니 그동랑흔 얼골이야 어티같것  
 아니지만은 그넘어진 모양이 홀일업셔 썬정이송장이라 강변사마귀는이리로

느르며「썬스」저리로느리며「썬스」의썬와셔 여기도「썬스」맞혀보고저  
 괴도「썬스」맞혀보나 이것저것다 모르고누엇더니 누가허리를 썬스찌르고또  
 썬스찌르느섬에 간신히눈을 들어보니 어리아리하게 보이는중에 키는 장승코  
 고 웃은시커멓코 코는 쥬먹덩이만하고 눈은여산철십리는 드러간듯하야 독갑  
 이중에도 상독갑이갓흔 사람이엮혀셔서 무슨말을하는티귀도 먹먹한지만은무  
 슨말인지 어훈도알슈업고 말홀괴운도 업거니와 티달홀출도 모르고 눈이멀거  
 니쳐다 볼썬이라 그사람이 달녀드러 이르켜안쳐놋코 쌀병을녀며 물을먹이더  
 니손목을밧고 인가를쳐져가니 그곳은신의쥬나루턱이오 그스름은 영국문학박  
 스 스미도라하는 사람인티 조선가로 영국에 유명흔스름이라 그스름이동양을  
 유람코져하야 일본단녀 조선으로와셔 부산티구 경성기성 평양의쥬를 다구경  
 하고 장차청국북경으로 가는길에 이곳에서 영창이 너머진것을보니 얼골이비  
 범흔아희가 그모양으로 누어잇는것을 미우측은히녀여 즉시밧고 신의쥬기시  
 장 일본사람의 여관으로 드러가서 급히 약을먹인다 우유를 먹인다하야 정신  
 를찰인후에 목욕을식게고 셔옷을사셔 입히니 그쥬슈흔 용모가 판옥웃흔호  
 남즈이라 곳다리고 압록강을 건너가니 다죽엇던 영창이느 은인을맛나 목숨  
 이사라느미 그썬는 아모싱각업고 다만「아모조록 싱명을보전하야 괴회를엇어  
 원슈를갑고 우리부모의 사속을전하리라」하는 마음썬이라 그사람과 말이나흔

할것같으면 사실리약이느 자서히하고 서울 리시종집으로느 보너달나고 간청  
 히볼타이언만은 말은셔로 아라듯지 못하고 홀일업셔 그사름이살고 가너뒤로  
 짜라가너뒤 셔로소름 보듯하며 먹을씩되면먹고 잘씩되면자고 마추를타고 막  
 막흔 광야로도가고 괴차를타고 화려장터흔 시가도지너보고 화륜선을타고 망  
 망흔 바다로도가셔 어디로가너지 모르고가다가 어느곳에서 괴추를느리미 길  
 에는 철로가 번들업셔노이고 하늘에는 전선이 거미줄긋치일컷스며 넓고넓은  
 길에 마추즈동추 자전거는 여괴셔도쓰르를 저괴셔도 쓸々하고 십여층벽돌집  
 은 좌우에징영하며 각석공장의 연괴글독은 밀집드러셔듯 총々야 그굉장흔  
 풍물이 영창의 눈을놀니니 그곳은 영국셔울「론돈」이오 스미트의집이 곳그곳  
 이라 스미트는 영창를다리고 집으로드러가셔 세계에업는 보화를엇어온듯이  
 귀히너이니 그부인도역시 조괴즈식긋치 사랑하며 날마다 말가라치기로 일습  
 는디 영창의죄조에 한번드른말과 한번본글즈를 다시엇지 아니하고 몇날몇하  
 야 가정에서 날마다 쓰는말은 능히움기미 부인의마음에 신통이역이고 츠々디  
 지산술 리과등의 소학교과정을 그르치기에 자미를붓치고 영창이도 스미트너  
 외의게 천부모긋치 정답게글며 근심빚을 외면에 드러너지아나하더라  
 정임이는 영창이종적을 모르고근심이 가슴에 밋쳐서 옷삼이 즈연 느져지너더  
 이언만은 영창이느 부모가 그다경된것이 지극히 불쌍하야빅히가 녹는듯이숨

흔마음에 정임이성각은 다시이졌다니 하로는 산술을 공부하너뒤 숨숨을즈승  
 (83X83)하는 문데를노으며「숨숨구...: 숨숨구...: 또...: 숨숨구...:」하다  
 가 문득한성각이나며「을치 정임이가 남문역에서 작별할씨에 편지나자조하라  
 고 부탁하며 통호슈를잇거든 숨숨구를 생각하라더라 편지나붓쳐셔 소식이나  
 셔로알고 잇스리라」하고 초산셔 봉번하던말과 스미트를싸라 론돈와셔공부하  
 고잇는말로 즉시편지를써셔 우편으로보니고 다시성각하고 편지또할장을써셔  
 시종원으로 붓쳤더니 스오기월이 지너후에 그편지두장이 흔집에 도로왔는디  
 쪽지가 너덧장붓고「영슈인이 무하야반환홈」이라썼스니 우편이 발달된지금긋  
 흐면 성안에잇는 리시종집을 엿더케붓쳐져 전하리오만은 그씨는 우체비달이  
 유치흔 전한국통신원 시더라 체전부가 그편지를 가지고 교동숨삼숨통구호를  
 츠져가미 불이라셔 빈터뿐이오 시종원으로 츠져가미 리시종이 갈너업는고로  
 전하지못하고 도로보낸것이라 편지를두곳으로붓치고 답장오기를 고티하든영  
 창이느 엿지된스실을몰나 마음에 더욱불평이 지너는디 츠々지각이날스룩 남  
 의나라의 문명부강흔 경황을보고 너나라의 야미조잔흔 리유를성각하미 다른  
 근심은 다어디로가고 다만학업에 힘쓸성각뿐이라 즉시학교에 입학하야 열심  
 으로공부하니 그과공이 일취월장하야 열여섯살에 중학교 졸업하고 열아홉살  
 에 문과대학 졸업하니 그학문이 홀용흔 청년 문학가가되는지라 스미트너외도

지극히 깃버할뿐 아니라 영국문부성 관리들이 극구천송 아니하는 자가 없더니 문부성 학무국장인 스미트를 방문하고 그의 설을 영창에게 응호하는지라 영창이 생각에「아모리 정임이와 서로 정사를 아지 못하니 누가 정임이 거취를 자서히 알기 전에는 다른 비필을 구하지 아니하리라」하고 그제야 그의 뜻과 정임의 관계를 낫스치 스미트의게 이 약이 높고 학무국장의 의호를 거절하였는디 그히륙월 에 스미트가 대일본회빈 주츠영스가 되어 일본으로 나오미 영창이 도스미트를 따라 회빈와서 있더니 어느새는 동경으로 구경갔다 지리호가 을창에게 구경도 못하고 적々 할여관에서 파초입해 찌러지는 비소리를 드르며 소설을 저술하는디 고국 생각이 서로 간절중 정임이 소식을 하로 밤비 알고저하는 회포가 마음을 혼드러져「아마 정임이는 그스이의 집을 갔슬겜」하고 생각하며 하늘가에 도라가는 구름을 우연히 바라보더니 헤여져가는 구름 넘어로 속소스오르는 한 조각달이 수정갓환광휘를 두루 날리는지라 꽃상야공원에 가서 산보하다가 불인지 연못가에서 맛참엇던 스름이 깔노녀 학생 지르는 것을 보고 잔영호 생각에 왈각느서 소리를 지르며 급히 쫓아가니 녀 학생의 목에 칼이 박였는지라 그 칼을 얻는새여 들고 학생을 데리고 그놈은 밭사다라났스니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협의적고 그리로 가즈하니 이것이 산아히 일이 아니라」스기가 디 단히 면망하야 엇지 할 줄 모르고 한층 생각할새에 형순하는 순스의게 잡혀가니 심문하는 마당에 무엇이

라고 발명할 증거는 업스니 사실대로 말하니 그말은 아모 효력 업고 이 미호 살인미 슈범이 되야 즉시 재판소로 넘어가서 감옥에 갓치엿더라 이새 정임이가 호출장을 가지고 재판소로 드러가니 검스가 그날저녁에 당호든 사실을 조사하쇼스하더니 엇던 죄인을 디면시키고

(검스) 저 스름이 공원에서 깔로 지르든 스름 아니냐  
 하고 못는디 정임이는 그 스름의 얼굴을 조사하보고 병원에서 신문보든 일을 성각하니 얼굴 전형도 흡스호 영창이 어러 쓸새 모습이 오 눈새 코썩리도 모다 영창이라 은근이 반가온 마음이 염동밋을 쭈셔니 혼편으로는 그 스름이 정녕 영창인지 아닌지의 심도 업지 아니 할뿐 아니라 경술이 반석 할 일도 못되고 또 관덕에서 사스말 할 수도 업는디 이라 검사의 말 디 답을 겨를도 업시 그 죄인을 물꼬음이 보다가 한참만에 디답을 한다

(영임) 저이는 그 스름이 아니올시다 그러는 저 스름의게 호마디 무러 불 말씀이 잇스오니 잠간허가 하심을 바랍니다

(검스) 무슨 말을

(영임) 이 사건에 디호 일은 아니오는 사스로이 무러 불 말한 일이 잇습니다

(검스) 무슨 말인지 잠간 무러 보아

영임이는 검사의 허락을 엇어가지고 그 죄인을 데하야 조선 말로 못는다

(당암)당신은 엇지된스괴로 이곳에 오셨소

(퇴인)다른사닥이 아니라 공원구경갓다가 엇던놈이 전문부인을 모히코져함을 보고 마음에티단이 송연야급피 쫓차갓더니 그놈은 다라나고 내가 발명할수업시 잡혀왔습니다 그부인이 아마당신인게오구려 그썩는 미우위험한 더니 천만에져만하신것이 티단히감축합니다

(당암)그러하시오닛가 나는그썩 덩신일코 아모것도 몰났습니다그러위티 흠을무릅쓰고 이만스름을 구하야주시니 티단히곰압습니다만은 이미히여려늘 고성을하야 계시니 가업슨말슴을 엇지다하릿가 그러는 존함은 누구신 지오

(퇴인)이스름은 김창창이올시다

(당암)여러번뜻기는 너 무불안함이 다만은 내게은인이 되시는터에 자셔이알아야 하릿습니다 황송한말슴으로 춘부장은 누구시오닛가

(퇴인)은인이라하심은 천만에말슴이올시다 우리선천은 김○○이올시다 (당암)그러면 관직은무슨벼살을 지니셨습닛가

(퇴인)벼승지너지고 초산군수로 도라가섯습니다

하면서 눈살을썩그리논티 덩임이논 그말드르미 다시 무를것업시 퇴수에밧쳐잇는 김명창이라 죽은줄알던 영창이를 뜻밧개맞는니 덩신이아득하며 깃분마

음이진하야 숨흔싱각이싱겨셔 아모말못하고 눈물이비오듯하논티 영창이는감옥서에갓쳐셔 발명하기를 근삼하다가 녀학성티면시기는것이 티단하상쾌하야이제는 발명되갓다고 싱각하더니 그녀학성은 일본말로검사와 수장하미 무슨말인지 몰는 굽금하던초에 녀학성이 조선말로 자셔이못는것이 하도이상하야 그얼골을 숨혀보니 남문역에서 한번리별후로 십년을못보던 덩임의 용모가 여전하는 역사의아하야 다른말은늘슈업고 다만못는말만티답하더니 맛찰내탁루하는것을보미 의심이더욱나셔 한번무러본다

(영창)여보시오 자셔이무르시기는 웬일이며 또락루하시기는 엇지혹곡절이오닛가

(당암)나를싱각지못하시오 나는리시종의딸 덩임이오

하며흠々웃기니 철셔웃흔 장부의총조도 이경우를당하야셔는 엇지혹슈업시논물을출녀 슈건을져서더라 심문하던갑사는 엇지된사리를모르고 정임을불너못논지라 덩임이가 영창이와갓쳐 자라던일로부터 부모가 혼인정하던말과 초산민요후에 서로싱스를모르던말과 동경와셔 유학하논원인과 오늘에의외로맞는 말을낫々치이악이하니 검사가그말을드르미 김명창은 빅빅이미활썩어나라그스실이 미우신괴홀지라 검사도덩임의 절기를무한하칭찬하며 한가지니여보니고 강소년을잡으라고 각경찰셔로 전화도하고 조선유학성도 일변조사하니 각

신문에 「불행위험」이라 제목하고 정임의 스실의 슈미를 제정하야 극히 찬양하얏  
스미 동경잇는 조선 유학성이 그 스실을 모를 스름이 업더라  
정임이와 영충이 그 지관소에 서나와서 그 처여관으로 도라와 마쥬안지니 몽몽흔  
꿈속에 보는 것도 되고 죽어 혼백이 맞는 듯도 하야 그 마음은 이로 측량할 수 업  
는 지라 서로 올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그 사이 풍파 겪고 고성하던 이 약이를 작약  
하야 그 황빈영국영사관으로 내려가서 정임이 스미트를 보고 영창이 구제  
함을 감사히 치하하고 영충이 는 공교히 정임이 맞는 말을 하며 본국으로 나그서  
흔레지닐 이 약이를 하니 스미트도 단단히 신기히 녀이고 혼레준비금 숨천원을  
주는 지라 정임이 는 곳 장문전보를 본가로 보니고 영충이와 혼그지 발정하야 서  
을 남문 정거장을 그마이오니 함강은 용용하고 남산은 의 스하야 의 구호고 국산  
천이 환영하는 뜻을 먹음엇더라  
정임이 동경으로 그던 그잇 혼날 아침에 리시종집에서는 혼인잔치 차리너라고  
원집안이 물설릇하며 봉치서루를 찢드 신랑마종을 보닐드 법석을 하논디 신부  
는 방문을 쳐서 닳고 일고 숨장하도록 이러나지 아니하미 리시종부인이 심하이  
상하녀이고 이이정임아 오날 그 혼날 무슨 잡을 이리 늦게 자느냐 어서 이러나서  
머리도 빛고 제수도 하야라 말서 수모그왔드」 하며 방문을 여러보니 정임이 는 간  
디 업고 원편지호장이 지리우에 퍼잇는디

(편지) 불효의 슬 정임은 부모를 찢는 딸나그는 길을 탐하야 죽기를 무릅쓰고  
두어마디 황송한 말씀을 아바님 어머니께 올나이다  
디저사름이 세상에 처하야 룡강을 직하지 못하면 그 스름이 될것 업시 금수와  
드르지 아니함은 정호일이 아니오닛그 그러하온디 부모게 업서 괴왕이 몸을 영  
충이 의게 허흔하얏스오니 비록 성례는 아니하얏슬지라도 영충의 집스름이 아  
니라고 할수 업는디이라 엇지 영충이 잇고 업는것을 헤아리오릿그 지금스세  
로 말씀하오면 우에 늙은 부모그게 시고 아티에 산아히 동성이 업스미 그정  
형이디 단히 절박하오나 그스정을 아자 못하는바는 아니오라 지금만일 부모  
의 두번명령하심을 복종하와 드른곳으로 또 식집오면 이는 부모로 하야 금  
그른곳에 빠지게하야 오륜의 첫지를 위반함이오 이몸으로써 절기를 일허슴강  
의 옷들을 문란케함이오니 정임이 그 비록 그지 못흔 계집아히오나 엇자 조고  
마흔 스정을 의지하야 룡강을 어리고 금수에 그마온일을 참아하하오릿그 그  
러함으로 죽스와도 리일일은 감히 리히 못하옵고 곳만 리봉당의 먼길을 하하  
오니 부모의 슬하를 찢나거정을 시기는 일은 실로 불효막심하오나 백번성각  
하교 마지 못하야 하하옵는디다 그러하오나 멸학미식흔 천절로 허외에노라  
문명공의를 마시고 조흔 학문을 비화 도라오면 이 엇자 영화가 되지 아니오릿가  
머지 아니하야 도라오겟스오니 과도히 근심마옵시기를 천만바라오며 급히 두

어저로 갓초지 못하오니 아바님어마님은 만수무강함을소서  
부인이 이편지를 잡어들고 삼작놀나며 저서히보지안코 사랑에잇는 리시종을  
청하야 그편지를 주며덜々 떠는 말노

(부인) 이거 변괴요구려 요런방정마진년보아

(리) 왜그리야 이개무엇이야.....응

하고 그편지를 받아보는데 부인의 마음에는 그질이죽어서 나간듯이 서운섭섭  
하야 비죽비죽울며 목민소리로

(부인) 고년이 평일에 동경유학을 원하더니 아마일본을긋는보고년이자식이  
아니라 이물이야 고어린년이어디가서 고성인들오작할노구 고년이요런성각  
을돈줄알앗다면 아히년으로 늙어죽더티도 고만두엇지 그러나저러나 아모  
데를가더티도 죽지나마랏스면

하며 무당덕두리하듯 하느니 리시종이 그편지를다보더니

(리) 여보 요란스럽소 썬드지마오

하고 덤보지를녀여 영임이압류하야 달나고 부산경찰서로 보느는덤보를 썬가  
지고 전보못칠돈을 썬너라고철계를 여러보니 귀썬러진 엽전호푼아니 날기고  
죄다닥닥 글거너엿는지라 하일업셔 데일은형 소절수에 도장을썬어 지갑에넋  
터니

(리) 여보 마누라 나는덤보못치고 바로부산까지 다녀올터이니 집안일은 마  
누라가 취감을잘하오

하고나긋는티부인은 정신업셔 허둥지둥할스이에 잔치손님이 썬역썬역모야들  
고 마침중리야비 영임의외삼촌이 오느니라 부인이 그동성을붓들고 영임이이  
약을 흘츄는판에 서신랑이 스모판티하고 안부를말머리에압제우고우적우  
적달너드니 부인남미는 신부가밤스이에 도망하얏다는 말을엇다하며또갑작이  
죽엇다고 핑계도할슈업는터이라 엿디할줄모르고 창황망쥬하다가 등에닷치도  
안는말로 신부가 디나간밤에 급히병이느서 병원에가있다고 위선말하니 그눈  
치야누가 모르리오 안손맞스손 니하인남의하인 할것업셔 모다이구셔에도 모  
여셔셔 슈군슈군 저구셔셔도 모여셔셔 슈군슈군하느니 신부업는 혼인을엇디  
디닐수잇스리오 독썬천키는집응이느치여다 보다마는 장가들너왔던신랑은신  
부를일코 뒤등수만치고 도라셔고 영임의외삼촌은 즉시신랑의부친박과장을가  
셔보고 영임의썬뜻코간편다를 녀여보이며 사실의슈미를저서하이야기하고 무  
수하사과하얏스니 그창피흔모양은 이로말할슈업스며 리시종은 그길로즉서부  
산을 느러가서 연락선을타는 선창목을 직히느그썬 식주가서방의게 잡허가긋  
쳐잇는영임을 엿디그림즈는 구경할수잇스리오 하일업셔그잇흔늘 도로올느  
오는길에 경찰서에가서 간원하 다시부탁하고 왓스느영임이느 일본웃남고 일

본스름름에 제여웃스미 경찰서에서도 아디못호고 못쳐보넌것이더라  
 리시종내외는 성제디락을그외설정임의게만 붓치고늘어가느라이래응석도즈미  
 로밧고 독살도귀엽게보며 근심이있다가도 정암이얼골만보면 업서디고화증이  
 는다가도 정암이말만 드르면푸르디며 어티를웃다오다가도 티문잔에서정임이  
 면저츄디며 드러오느라이더니 정암이가흔적업시 한번간후로정임이거동은눈  
 에암암호고 정림이목소리는 귀에징징호야 정암이싱각에곤흔잠이 번쩍々々쳐  
 여 밋칠것웃치디내느라 어느날아참에는 하인이엇던편디한장을 가디고드러오  
 며「이편지가뒤에오는 편지오닛가 우체스령이 두고웃습니다」호느라 피봉전면  
 에는「경성북부즈하동」○八「○리시종」○「각하」라쓰고 후면에는「동경시하  
 곡구기팔등십일번디 상야관리정임이라 호얏느라 리시종이 밧아보미눈이번  
 썩뜨여

(리)마누라 마누라 정임이편디가 왓소구려

(부)아에고 그년이어디그서 잇단말이오

호며반가운마음을 이과디못호야 비죽비죽우느라 리시종이 그편디를너여보니  
 (편디)미거흔녀석이 오괴흔 마음으로 불호되됨을 싱각디 못호읍고 홀연이한  
 번썩뜨는후에 성스를오리결호오니 디극하황송호읍고 또흔문후호를 길어업스  
 와 민을한마음이 추양업스오며 그스이츄풍은 부러드호고 짜인눈이 심하침

사온티  
 괴체후일향만안호읍시고

어마님께옵셔도안녕호시온닛가 북모구구불리읍지못호오며 녀식은그씨곳등  
 경으로와셔 공부호고잘잇사오느 아바남되읍고 심은마음과 북모께옵셔이불  
 효의즈식을 과히근심호실싱각에 잠이달지아니호며 먹어도맛을 아지못호고  
 항상민망히지니읍느이다 그러호오느 집에잇슬썩에 지어쥬는웃이느입고드  
 히노흔밥이느 먹으며 산아히가 눈에뜨면 큰변으로 으라티문밧을 구경치못  
 호읍드가 이곳에와셔 처음으로문명국성화를관찰호오미 시가화려호은 좁은  
 안목에모드장관이읍고 풍속의우미호은 어듣지식에 비홀거이 만스와늘마드  
 풍속시찰호기에 착심호고 잇사오니 본국녀즈는 모드집안에 첩복호야 능히  
 스름된 직척을헿치못호고 그영향이국가에서지 밋치게함이 마음에극히호심  
 호읍기 속히학교에 입학호야 신학문을 만히공부호야가지고 귀국호와 일반  
 녀자계를 이랑코즈호읍느이다 이즈식은 즈식으로싱각지마읍시고 녀무겨정  
 마시기를 천만바라오며티리  
 괴운안녕호읍시기 업디러비읍고 더홀말습업스와 이만알외읍느이다

년월일 녀석 정임 상셔

그편지를 너외분이 돌려가며 보드가

(부인)이이그 고년이야 어린년이 동경을 잊지못는 고년조섭만년이 밍냥도  
 하지영감은 그썩부산셔 무엇을보고오섯소 경관도변변치 못하지...그러고  
 저러고 으모데던지 잘가잇드는 소식을으랏스니 시원호오만은우리가 늣어오  
 늘죽을지 니일죽을지 모르느처지에 그썩지식하느를 오릭그리고 못살깃소  
 기드케말을깃업시 영감이가셔 드리고오시오 식집만보내지이니호면 고만이  
 지 재가마드고 으니가느식집을 부모인들 잊지호겟소  
 (리)그렷치만은 사과가이렷케된이상에 그거를드려오면 엇더케 혼단말이오  
 점점모양만 더총피호니 나종에 엇지호던지 으저저호는되로 니버려두고 왜  
 저히 소문니지마시오  
 부인은단지 그썩을간곳도모르고 그리던썩헤 보고심은싱각이 더욱밧바셔헌  
 말인디 그남편의 티답이 이렷케나가미 죠々한마음을 참썩잇스나 원리부인의  
 성정이라 썩보고심은싱각만나면 고만다려오라고 은근히그남편을쥬르느티어  
 지만은 리시종은 그렷치아니한 리유를그부인의게 간곡히 설명호고 달달이학  
 즈금오십원석 보내쥬며 언제던지재마음내키느되로 도라오기만기다리고 두내  
 외가비들기갓치 의지호야한히두히지느느티 늣어갈수록 덩임의싱각이 간절호  
 야몸이 좀압호기만호면마음이더욱 처연호터이라호로는 부인이몸이곤호야 안  
 셔에의지호얏느티 홀연히 마음이조치못호야 몸이이렷케은근히 압호니아마덩

입이를다시못보고 황련에가라나보다호며싱각호고누엇더니 셔창으로슬々부러  
 오노맑은바람에 낮잠이 혼곤히오느티 전에 살던교동집에서 옥동박신랑과 덩  
 임이혼인을지닌다고 수선호는중에 는티업느영총이가 칼을들고 별안간달녀들  
 며내계집을 썩시집보느는놈이 누구냐고소리를벽벽々치지르고 리시종을 칼로  
 찌르니 리시종이 마루에넘어져셔 발을버둥々々호며 「어...어...호는소리에잠  
 을번져쳐니 티문간에서 엇던스름이 문을두다리며 「전보되려호 전보되려가  
 오」호는소리가 귀에크게 들니느지라 그썩하인은 다어되로호던지 부인이급히  
 나가전보를바다보니 덩임의게셔 온전보이라 썩싱각호고 덩임이 전보를바드  
 리 가심히션썩호야 급치셔여보니 전보지는대여섯장접치고 전문은 모다썩불  
 썩불한일본국문이라 볼줄은아지못호고 갑갑호고궁금호야「이게무슨말인고이  
 스이썩즈리가 어지렵더니 근심스려운일이 썩싱겟나보다 제가나올셔도되엿지  
 만은나온다는말갓호면 이렷케갈지아니호터인대 아마병이드러죽게 되엿다는  
 말인게지」호며중얼중얼호는셔에 리시종이드러오느지라 부인이전보를 니여노  
 호며썩이악이를호는데 리시종도 역시소경단청이라 셔로답답호말만호다가 일  
 본어화호는 스름의게 번역하다가보니 다른말이아니오상야공원셔 봉변호던말  
 과 의외에 영총이맞는말과 영총이와방금 발정호야 어느날몇시에 셔올도착호  
 다는말이라 일변놀납기도호고 일변반갑기도호야 리시종은감투를들너쓰고도



라다보며 저근사탕을 슈리히라 건넌방에 도비를히라 분유히늘치고 부인은안  
 방으로 드러갓다 마루라나섯다 정신업시슈션하며 너외가밤먹을줄도모르고잠  
 잘줄도모르고 축사는오난듯이야단을 치더니 영임이 입성한다는일이되니 남  
 대문역으로 영임이마종을 나가는데 영임이라고 오논과차가 도착하니 그세정  
 거장호모등이에는 서로붓들고 눈물흘리는빗치더라  
 영임이는 조흔학문도 만히비호고 가삼에못이되던 영충이를 만나서 다섯히만  
 에 집에도라와 그부모를뵈니 이갓치깃분일은 다시업시 역이고 왕스는다시이  
 저바린터이지만은 리시종은 조흔마음이야 오작할것이나 영임이를 막과장집  
 으로식집보느니라고 흥던싱각을흥디 영임이불낫도업슬뿐더러 더구나 영충이보  
 기그면란야 조흔마음은 속에품어두고 영임이나 영충이를 더할적마다 부셔  
 러운과적이 표면에나타나더니 그일은이왕지나간일이라 그런싱각은 다접어놓  
 코 일변히일을흥고 일변잔치를치리며 일변은천척고구의게 청첩을보느신혼  
 레식을 거행하는디 레식을습관으로할것갓흥면 전안도흥고초례도 흥깃지만은  
 리시종도 신식을조와흥거니와 신랑신부가 모다신공의쓰인스름이라 구습은일  
 변테지흥고 신식을모범야 신혼식을거행한다 신랑은문관디례복에 신부는부  
 인례복을납고 청결한례식장에 단정이마쥬션후에 신부의부친 리시종디기로악  
 슈례를행하니 그만히모헌잔치손님들은 그런혼인을 처음보는터이라 후남을막

고웃는스름도잇고 혹도라져서 흥보는스름도잇스며 그중에도습관을 기혁고저  
 흥는스름은 무슈히찬성하난디 흥편부인셔에서 나히한사삼된부인이 나서더니  
 이스름이 아모지식은업스오나 오닐혼례에디야 흥줄모르난말 셔너마디흥터  
 이오나 여러분은흥셔하심시오흥고 연설을시작한다

(연설) 디저신혼례식이라하는것은 혼남즈와 흥녀즈가 비로소 부부가된다고  
 처음으로밍약하는 레식이아니오닛가 그런고로그레식이 대단이소중흔 레식  
 이올시다 옛저소중하냐하면 흥편이레식을지닐후에는 빅년의고락을 갓치흥  
 며 만대의 철속을 전할뿐아니오 남편되는 스름은 또장가들지 못하고 더군  
 다나 안히되는 스름은 다른남즈를 공경하는일이 절대적업는법이니 이렇케  
 소중흔 레식이 어대또 잇슴닛가 그러하나 그니용상으로 말하면 이코치중  
 디흥지마는 그표면적으로 말하면흥형식에 지나지못하는일이라고 흥깃습니  
 다왜그러하냐하면 이레식을지니고리도 남편이안히를 바린다던지 안히흥실  
 이부정할것갓흥면 소위레식이라하는것은 흥희롱되고말것이오 만일 레식은  
 아니지니고라도 부부가되야 흥례식지닐스름보다 의리를잘적하면 오히려레  
 식지니고시종이 여일치못하니보다 낫지아니갓습잇가 그러하는 그의리라  
 흥는것은 이왕말씀흥바와코치 남편은 또장가들지못하고 안히는다른남즈를  
 공경치못하는것이올시다 그러나 그중에안히되는스름의 책임이더욱 중하니

서양풍속이요 하면 남녀가 동등 권리를 보유했야 남편이 안히이나 일반이지만  
 은 원리 동양습관에는 남편은 엇더한 입을 향던지 유취 취쳐야 몇번장가를  
 들던지 아모관계업스나 녀조가 만일 한번실절하면 세상에 다시 용납지 못할  
 스름이 되니 남편가 동등되지 못하고 남편의 조유를 묵혀함은 실노 불미 혼풍속  
 이지만은 그 녀조가 권리를 스스로 일하는 것이라 말할 필요가 업거니와 안히가  
 절기를 적히는 것은 원리적으로 녀조의 조유분이 아니오잇가 그러하지만은 음  
 분란행은 히녀조의게서 먼저 성기는 고로 넷적성인도 딸녀는 불경이 부라 하  
 야 녀조를 더욱 경계하였스니 남의 안히된 스름의 책임이 열마나 더 중함잇가 그  
 러하나 그의 리와 죽음을 잘 지키장히 어려운 고로 딸녀가 가면 그 영명을 천고  
 에 칭송하는 바아나 온잇가 그러하디 오늘 신혼식 지닌 신부 리명임이는 가히 딸  
 녀의 반렬 참례 하갓다 합니다 그리유를 말하고 조항면 명임이 강보에 잇슬씨에  
 그 부모가 김영총씨와 혼인을 정야 셔로 녀의 될 스름으로 인정하고 조치조라  
 낫스니 그 관계로 말하던지 그 정리로 말하던지 그 형식에 지나가지 못하오 혼  
 례아나 지닛다고 엇지 부부의 의리가 엇다 하릿가 그러나 중도의 영총씨에 중  
 적을 아지 못하니 만일 딸녀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식집스런 만은 그의 리를 저  
 히고 결코 김영총씨를 저바리지 아니하야 천근 백란을 지니고 괴어코 영총씨를  
 다시 맛나 오늘례식을 거행하니 그 숙덕이가 히 열녀가 되릿습잇가 못되릿습잇가

여러분 생각하야 보시오(티베티이 모다 박슈한다) 또 신혼례식 절조로 말습하면  
 상고시디에 나무열미 먹고 풀로 옷지어 입을씨에야 엇지 혼인이니 례식이니  
 향는 여부가 어티잇스릿가 성성지리는 조연 혼리치인고로 금슈와 조치남녀가란  
 잡히 상교하미저간에 무혼 혼경정이 있디나 스름의 지해가 조곰 발달되야 비  
 로소 겸은 말가족으로 폐빅하고 일부일부가 작비함으로 부터 초혼례라하는  
 것이 발명되얏는디 그 례식은 고금이 다르고 나라마다 다를뿐아니라 악가 말  
 습혼 것과 조치 혼형식의 지니가지 못하는 것이 올시다 그러하나 그 형식에 지나  
 지 못하는 례식의 절차는 아모 조록 간단하고 편리 혼것을 취하는 것이 조치아니  
 하갓습잇가 그러하디 조선 풍속에는 혼인을 지니라면 그 혼신량은 호강하디  
 만은 신부는 고성하는 놀이를 시다 얼골에는 희색을 써여 연지곤지를 씌고 눈  
 을 왜밀노 철색 벗쳐 소경을 밋드려 안치고 엉덩이가 저려 종일 씹뺨 못하갓니  
 혼인하는 놀이 조흔 놀이 그 게 무슨 못할 일 오잇가 여과 계신 여러분부인도 아  
 마 그런 경우 혼번식은 다 당히 보섯갓습니드만은 그것게 괴악 혼습관이 어티잇  
 습잇가 저신부 좀 보십시오 좀 화려하야 좀 간편 함잇가 이중에 혹(저것도 례식  
 이라하나) 하는 분도 게실 뜻하디만은 그러치안습니드 좃치 못하 구습을 먼저  
 리 혁하는 스름이 업스면 엇더한 일이던지 도저히 리량하야 불발이 업습니드 오  
 늘 지닌 례식이 가히 조선에 모범이 될 만하오니 여러분도 조녀간 혼인을 지니

시거든 오늘레식을 모방할십시오 나는덩임의 외숨춘속모가되는 스름이나쥬  
 금도 스정든 말숨이아니오니 여러분은 김히혜아리시기를 바라오며 변변치  
 못한말숨을 오리호오면 드르시기에 너무지리호고 괴로우실뜻호와 고만두  
 겿습니드

연설을맛치미 남녀간손님이 모든박슈글쳐호고 헤여져코는디 그날밤동방화축  
 에 원앙금침을 정답게피노호니 만실춘풍에 화기가응응호고 리시종은 희식이  
 만면호야 사랑에서 친구와술먹으며 그썰의사실일장을 이약이호더라  
 상야공원에서 덩님이를 깔로지르던 강소년은디구부즈의 아달인디열네살에그  
 부친이죽으리 열드섯살부터 외입에반호야 경향으로드니며 양첩장가도들고기  
 싱도떠여 팔선녀를숨여서 여겨져괴큰집을 드각각비쳐호고 화려호문방제구난  
 잡화상을버리며 각종에음악과는 연극장을 설립호야뜻코 이집저집도라드니며  
 무궁호힝락을 호도가못호야 그것도오히려 부족히역이고 주사청누는 거르느  
 놀이업스며 산사강정에 아니노는곳이 업시그방탕함이 뜻치업스미저의집십여  
 만원지산이멧히 아나가셔드업셔지고 종조리판에는도지가옥까지 몰슈히 강제  
 집행을당하니 그만튼제집들도 몰호르고 구름가듯호나식 들식썰썰이 드드라  
 나고제몸호나만 을연히남앗드 티저음탕무도호는놈이 이지경이 되면괴과천선  
 할줄은모르고도적정를생각이 싱기는것은 하등인류의 조연호리치라 그소년도

제신제결단나고 제집망호것은 조금도후회업고 단지흔이쓰던 돈도못쓰고잘호  
 든외입도 못호는것이지극히 민망호야 못륙촌의 전답권을 위조호야 만원에파  
 라가지고 또호참호청거리드가 그일이발각되야 룡촌이정장호얏슴으로 관가에  
 셔잡으랏호미 죽시동경으로 드라나 산본이라호는 로파의집에 주인을 잡고있  
 는티 아모소관스업시 오리두류호는것이 모디이상히역일뿐아니오 경찰셔도사  
 에디답호기가 곤란호야 유학싱인체호고 어느학교에입학호얏드 또금만싱각이  
 있는놈코호면 별종상드겨고 뇌지물남의지물그만치 업셔쓰니 동경코치도흔곳  
 에와셔 남의경화를구경호얏스면 제마음도 좀희기호뜻호것만은 키썰리를성애  
 슴년못어두어도 황모되지아나호다호 학교에입학호는호얏스나 공부에는 정신업  
 고 길원코호화류장애나 종스호며 얼골만반호는 녀학성이나 쪼차다니는터인티  
 덩임이학교에가는길이 강소년학교에 오는길이라 덩임이논물낫스나 강소년은  
 덩임이를학교에글제맛고 을제만스미 호호유심이 가심에팅중호야 덩임이다  
 니는학교셔지 쪼라가보기도호고 덩임이있는여관셔지 쪼초와보기도 호얏스니  
 덩림이가 대문안으로 드러가기만호면 한협티문안이 티평양을 격호것 코치쳐  
 막호고 다시 소식업셔 마음에 점점감질만 나게되미항상 그녀학성을 엿지호  
 면한번만느볼고싱각호더니 엿더케아라보앗던지 그녀학성이 묘션스름인줄도  
 알고일홈이 리덩임인줄도아앗스나 엿더케돌녀낼슈단이 업셔 주인의썰산본영

즈를시켜녀학성일요강습회를 도직하고 리명임을유인하여 회장을 민드러놓고 자기논저무축탁이되야 명임이와관게나 ㄹ가이되고 면분이나 두터와 지거던엇더케뻘야불싸 한일인티사막은 여의히되얏스나 명임의명숙한티도에 압과가되야 말도 못쳐보고 또산본노파를 소리하여 명당히등흔도하여 보다가 그역시실피하미이를것업시분이역이던츠에 공교히 호젓한불인지가에서 맛나달빛헤 빛취는자석을 다시보미 불꽃흔욕심이반짜나서 엇지되얏던지 한번쏘아보리라 하다가 종년그리케헝피하고 그길노도망하여 도선으로나왔스나 죄진일이한두가지아니미 짐으로는 가지못하고 바로서울와서 변성명하고 도라다니더니 향로는북장동 거리에서 동경잇술써짜비가되야 계집의집에 ㄹ치다니든 유학성친구를맛스니 그야말노 유유상종이라고 그친구도역시강소년과한바리에시를사름이라장비는 맛나면싸홈이라더니 이두사람이서로 맛스면아모것도 할일업고 요리가아니면 계집에집으로 ㄹ는일박게 업는티이라 이씨에또맛나서「이이오리감만에 맛났스니 술이나 한잔먹자」「무슨맛에 술먹는단말이나 술을먹으라거든 은근즈집으로 ㄹ자」하며 두셔너마디 슈작이되더니 은유하고 종용흔곳으로쳐가노라가는것이 즈썰리시종집 옆헤잇는 진주집이라하는 밀미음녀집에가서술을먹는티 그친구는 동경셔「헝위불헝」이란 신문잡보도보고 경찰셔에서 유학성도스 하는통에 강소년이 그런짓하고 도망할줄알고 조선을나왔스

미강소년을 맛스나 남에단처를 아는체할필요가 업서그일아는 스식도아니하고술먹으며 명답고즈미있게 밤이김도룩 노는티이더니 원리탕즈잡류의경박한헝동은 정다운친구술먹으라 ㄹ지늦코도슈를니면싸리고 육항기는 헝용하는 일이라 두사람이술이잔득취하여 회설슈설 주정을농든듯헤 유인계집사름으로 시비ㄹ되야 육신각신달투다가술상도치고 세간도부슈더니점々쇠하여큰싸홈이 되며쌈도싸리고 옷도찌즈며 일장풍과가 이러나서 니 ㄹ을흐니 네 ㄹ을흐니 지판을가자호소를가자하며 며살을서로 잡고리시종집 대문음헤서 싸호는소리가 (친구)이놈네가 명석이무엇이나 넷셔진놈이 뉘음헤서 요새위버르장을이름하야 네가요놈동경셔 녀학성 리정임을 죽이고도망히 나온강도놈이지 니 ㄹ혼놈은 내 ㄹ경무형에 고발하면 네죄는 경하여야 종신중역이다 요놈죽일놈갓흐니

하며 뉘싸호듯하는소리 ㄹ 벽너 ㄹ치리시종집 사랑에서지 들니더라이씨는곳정임이 신힌흔식지니든날 저녁이라 리시종이 사랑에친구와 술먹으며 정임이이악이를하는티 상야공원에서 강소년이 헝피하는말을 막하는판에 모든사람이 미우등분이 역이는씨에 별안간 문밖게서 왁자하는소리가 나는지라 여러사람이 모다 귀를기우고듯더니 그좌석에 북부경찰셔 총순다니는 사람이 안졌다가 그싸홈 소리를듯고 즉시쫓츠나서 강소년을잡으니 갈씨업는 강소년이라 원집

안이 들셔들셔하며「아이고 그놈용하게도 잡혔다」고놈상과되기가 엇더케실것  
 나 좀구경하자 요놈이살인죄미슈범이닛가 몇히종역이나 될고하며 어른아허가  
 모다 즈미잇셔다가 강소년은곳 북부경찰서로 잡아나 원집안이 고요하고  
 종녀나 무그림즈밋헤 학의잠이 깃혔는디 정임이 신방에서 탕々욕어그 즈미잇  
 게나더라  
 조선승관으로 말하면 혼인갓흔신랑신부는 서로말도잘아니하고 마췌안지도못  
 하야 가장스스려은체하는 법이오더구나 신부는혼인혼지 삼일만되면부역에나  
 드러그밥이나짓고 반찬이나민들기를시작하야 밤곳혼구경도 못하는터이라  
 니  
 의그 혼그지 출입하는일이 어디잇스리오마는 영창이니외는 혼인 지니던데슴  
 일에 만췌봉던(滿洲奉天)으로 신흔여행(新婚禮行)을떠는다 내외그 나라니서  
 서 정답게이악이하며 정거장으로 나그는모양이 영창이논 후륙고투에 고모를  
 쓰고 혼손으로 정임이를분홍양복 짜에살니는 치마즈락을 치여들었스며 정임  
 이는 옥적우산을 여기우에놓히들어 영창이와 반식얼너 밧엇는디 그요조흔티  
 도는 가을물결 맑은호수에 원앙이쌍으로 날는것도호호며 아츰벗 성긴울에  
 조안화그 일시에 웃는듯도하더라  
 신흔여행은 서양풍속에 서로혼인혼신랑신부그 서로 심디도흔니보고학식도서  
 험하며 처음으로 정분도드리고자하야 외국이나 흥명승디로여행하는것인디만

일셔로지과그 상합지못하면 그길에 리혼도하는 일이잇지만은 영창이 니외야  
 무슨심지를 더흔니보고 엇던정분을 쏘디리며 엇지리혼여부그 잇스리오 만은  
 유람도흔겸 운동도흔겸서양풍속을 모방하야 떠나는여행이라 남디문정거장에  
 서의췌북헝츠를타고그며 곳곳이구경하는디 지성에느려 황망흔만월디와 처창  
 혼선죽교의고려고적을구경하고 평양그서연광녕에오르니 그한유혼안게는디동  
 강비단꽃은물결에 비구는쌍으로날고 한그혼듯되는 멀리도라그는 경의그너히  
 시인소익이 술을흔찬 먹을만흔곳이라 영창이포도췌를니여 서로권하며전일평  
 안감스시디에 빅성의피를빠라그지고 이곳에서기성다리고풍류하며그호강들하  
 든것을 탄식하다가 곳부벽루목단봉영명스 그린골나스치 구경하고 그길로안  
 췌빅상루동천청류당 다지내서 의췌통군정에 올라란간의지하야 압록강상에  
 풍범스도와 연운췌슈를 바라보니 영창이얼골에 초창흔빛을씩고 손을들어스  
 장을그르치며

(영창)저곳이 니그스미트박스맛는던곳이오저곳을 다시보니 감구지회를이  
 괴지못하겟소 이완악흔목숨은스라 이곳에 다시왔스나 우리부모는저강물에  
 장스지니고 다시되옵지 못하깃스니 천췌에잇지못흔줄을 누를향하야호소할  
 데그업소구려  
 호고바람을릴하야 한숨을길게쉬며 흐르눈물을 검치못하니 정임이도그말을

듯고 그모양을보미지연 비감흥생각이나서 역시눈물을써스며

(정님)그감흥은 말씀이야엇지다흐오릿마 온눈물부모마 스라게시면 우리를 오작귀히호시겟소그부모마 우리를 그러케 귀히길너자미를 못보고중도에 불히히 도라마섯스니 디하에마저참아눈을 감지못송실터이오 우리도그부모 를봉양코자하나 엇지할수업스니 그야말로조육효이천부죄요구려 그러나과 도히슬허마시고 아모조특귀중호물을 보전호시오

이렇게서로탄식도호며 위로도호다마 즉시압록강을건너구려성을구경호고 계 관역에노려 멀리계관산봉수산을 지점호며

(영총)이곳은 일로전역 당시에 일본군이대승리호던곳이요구려 너마이곳을 지니마본지 몇히마못되는디 밭서황냥호고전장이 되엿네

(정님)아.....마련도호지 저청산에헤여진 용밍호장사와 충성된 병사의벽 골은 모다도장속 절문부녀의숨속 사름들이깃소구려

(영총)응그릿치만은 동양행복의괴초는 이곳승첩에완전히 곳고저렷케 철도 를부설호며 시마를기척호야 점々번화디마되야가니 이는우리황석인종도 초 초진호되는 조짐이지오

이렇게슈작호며 마을빛을쏘라 느진경을스랑호며 천々이행보호야 언덕도넘고 다리도건너며 단풍마지를색겨 모자에씻기도호며 잔々호청계슈를 움켜손도섯

더니어연간에 저문히셔산에넘고 저녁연과는 먼슈풀에 일젧는지라

(영총)히마저무릿스니 고만정거장근처로 도라갑시다 오날밤 이곳에서 자

고니일々직이떠나마며 쏘구경호지

(정님)니일은 어티어티구경호마요 요양빌담과화표주는 어티썸잇스며 여귀 서심양봉천부는 몇리나남앗소 아마봉황성은 갓갑지 그러나계문연슈마구경 호말호다는디 그구경도호를짐 이길에 북경까지갈사

호며막도라셔々 정거장을향호고오는디한편산모퉁이에서 난디업는청인한떼마

후말도타고 후노시도타고 우달녀들며 두말업시영총이를 잔씩결박호야나무슈

풀에제스쳐미여노코 일변수티도 세앗고 시계도떼고 안경도 벗겨모다 쥬섬쥬

섬호야 가지고정님이를 번쩍드러 말게올녀안쳐노코 썸적도못호게칭칭동녀미

더니 체적을쳐서급히 모라가는지라 정님은는 여러번 놀나본터에 쏘썸결웃치

호고 그남편이 엇지된지몰나 눈이감감호고 정신이 앓득아득호야 그마음을지

향할수업스나 그형제가 불가상적이라 속절업시 잡혀가는디 어티로 가는지한

업시 가다가 한곳에 다다라 궁궐갓치 큰집속으로 드러가더니 정님을티칭

에 올녀안치고 그여러놈이 좌우로느러서서 똥본오리처럼 무엇이라고 짓거리

디 그상좌에 괴골이 장대호고 용모가 준수호청인이 흰슈염을 써다덤고안져

서 깃분빛치 얼굴에 가득하야 빙글빙글우스며 정님을향하고 무슨말을 못는것  
갓흐나 정님은 말도아라듯지 못할뿐더러 그씨는 놀난마음 무셔운싱각다엿  
서지고 단지악만맛씩 나는판이라

Ⓢ(정님)「나도모지 키웃든오랑캐 소리를몰나」

하고쇠는소리를 지르더니그청인의 엽해안졌든 한로인이 반가운안색으로  
(로인)여보그티가 조선사름이오구려 조선말소리 드르니반갑기는 할구면:  
.....응.....집이어티인티 엇지되야 저디경을 당송앗단말이오 하는말이

조선말을듯고 티단히반갑게역이는 모양이니정님이도역시 위험한경위를 당송  
중에본국사름맛는나 마음에덕이위로되야

(정님)집은서울인디 만주로 구경왔다가 불의에이변을맛났습니다

하고티답하며 그노인을 자셔히보니 의복은청인의복식을입엇스되 그얼굴이던  
지목소리가 일호도를나지안코 흡스흔자괴식아바니 김승지웃호나김승지는티  
평양으로떠나갔는지 인도양으로떠나웃는지 모르논터에 이곳에잇슬리는 만무  
할디 암만다시보아도 정령흔김승지오 어려셔볼씨와 조곰도 다른것은 살찌이  
허엿게셀뿐이라 심히의아흔중에 약은싱각이나셔 내가져로인의거동을 좀보고  
만일우리식아바나는 아닐지라도 보기에그로인이아마쭈인관 정다운듯하니 이  
곤란흔중에 언덕거리나 좀하야보리라하고 혼자말로

(정님)아이그 계상에 갓은얼굴도잇지 그노인이 령누엿시 우리 식아바님갓  
히하며 별안간좌우니 노인이 정임이우는것을 흘츄바라보고 무슨싱각을  
하다가

(노인)여보 그웨말이오 니가누구와 갓단말이오 그티는 누구의 씨님이되  
며 식아바님은 누구신가요

(정님)나논 리시종○○의딸이오 우리식아바님은 김승지○○신디 식아바님  
씩셔 삼여년전에 초산군슈로 참혹히도라가신후에 다시되옵지못하더니지금  
노인의 용모를봐오니 이럿게죽을경위를당송흔중에도 감창흔싱각이나셔 그리  
흐니다

그 노인이 그말을듯더니 삼씩놀나며

(노인)응 그러그러면 네가정임이지

하고못는디 정임이그말을드르니 죽은줄알던 시어버니를 의외에츠졌는지라반  
가온마음에 정신이번져나셔

(정님)이게 웬일이오닛가 신통이도아어버님을 뜻밖게맛나되오니 이제죽  
어도한이엿기습습니다

하고이러는 절하며싱각하니 그제야정작설음이느셔 늦겨가며 우는디김승지는  
눈물을흘리며

(김승지) 네가 이케웬일이냐 이케웬일이냐 네가 이곳을오다니 그러나 영창이 소식을 너는알겠구나 티관절영창이가 초산봉변흘떡에 죽지나 아니하엿더냐

(정임) 장황호말씀은 밋쳐홀슈업습고 영창이도이길에 갖치오다가 이변을당하야 그곳에 결박하야 늦는것을 보고잡혀왔는디 그간엇지되엿는지 궁금호기이를길업습니다

김승지가 그말을듯더니 벌떡이러나서 안을향하고

(김) 마누라 마누라 정임이가 여기왔구려 영창이도 곳치오다가 증노에서봉변을히싸는길

하는말에 김승지부인이 신을거구로신고 허둥지둥나오며

(부인) 그케웬말이오 그케웬말이오 정임이가오다니 영창이는 엿더케되얏셔하고달녀들이 정임이손목을잡고 뼈가녹는듯이올며 목멘소리로 잘알아들을수도업는말로

(부인) 너는 엿지된일로 이곳에왔스며 영창이는 어디썸셔 육을 본단말이나하고 늦기며못는모양은 누가보던지 눈물아니날사름 업겟더라 그상좌에 안젓던 청인은 정임이화용얼티를보고 깃분마음을 이기지못하는 모양이더니 김승지너외가 서로붓들고올디 그거동이 보기에 이상하고 궁금호던지 김승지를청

하야 무슨말을못는디 김승지는 그말티답은 아니하고 정암이를 불너하는말이  
(김) 저췌공의게 인스하야라 너가저췌공의구원으로 스라나셔저간에 은혜를 만히받는터이다  
하며 인스시기는지라 정암이는 이러나셔 머리를굽혀 인스하고 김승지는그제야말티답을하더니 그티답이곳치미 청인은무릅을치며 정암을향하야 무슨말을하논디 그등변은 김승지가하다

(청인) 당신이 저김공에머느님 되신다지오 나는왕자인(王自仁)이라하는사름인디 당신의시아버님과는 형데갓치지니는터이오 그러나 으마디단히놀났지오아모염녀말고 부디안심하시오 잠시놀난것이야 엿더하릿가 오리그리던 부모를맛는보오니 좀다히호호일이되엿소

(정임) 각하씨옵셔 도라가실 부모를구호하시와 그처럼천절히 지너신다하오니 각하의은혜는 실노획골난망이오며 이사름은 부모를오리 그릴뿐 아니라 부모가 각하의 덕택으로 성존히계신줄은 모르고 망극한마음을 죽어잇지못하겟습더니 오늘의외에 맛는뵈오미이제는 아모한이업스오니 엿지잠깐놀난것을 교계호오릿가

정임이는그왕씨를 티하야 빅비스례하는디 왕씨는일변 정암이잡아오던도적을 불너 그셔정형을 자셔히조스하더니 곳영창이를 급히다려오라 하는지라 이셔



정임이 마음에는 우리네외가 두슈업시 죽은판에 려우신조항야 부모를 맞고  
 화익을 모면하니 이갓치 신과 혼씨는 업스나 영창이는 그간오작이를 쓰리하는  
 생각이나서 「잠시라도 마음뜻케하리라」하고 명합한장을너여 김승지를쥬며  
 (정) 아버님 영창이를다리려 여러사람이모여가면 쥬경또놀났듯항오니 이명  
 합을보이는것이 엇더흐닛가  
 김승지가그말을드르미 글일듯항야왕씨와의론하고 곳그명합을주어보이고 정  
 임이는 즈그네외의 소경스를티감 이야이하니 김승지네외는 눈물씻기를마지  
 아니하고 왕씨도역시 무한히칭찬하더라  
 영창이는 습시간에 후화를당항야 정임이를일코 나무에 동여민쳐로 썸작못항  
 고안젼스미 이산에서는 여호도짓고 저산에서는 올밤이 도올며 번져번져하는  
 인광(燐光)독갑이불은 여괴셔도 이러나고 저괴셔도 이러나서 남한산성 줄불  
 듯듯 발썩리로 식식지나가니 평시갓호면 무셔운징각도 잇스련만은 그것저것  
 조곰도 두렵지안코 단지 바작바작타는속이 츠라리죽는이만 갓지못항게 그밤  
 을 지너더니 하로밤이 삼츬갓치 지나고 동방에 시벽빛치나며 먼슈골에 시  
 소리가 짓거리는데 언덕밋호로 엇던청인농부가 한사람이 지나다가 그광경을  
 보고 응얼응얼탄식항며 동녀논것을 글너쥬고 가는지라 그농부를향항야 무수  
 히스레하고 다시안져 생각하니 정임이는 결코육보고 살지아니홀타이오 두말

업시 죽은사람이라 그언유를 관원에게 호소하자하니 그호소가 티단히물근호  
 소가 될타이오 그티로도라가자하니 정임이는 죽었는디 나는스라가는것이 사  
 름에의리가 아닐뿐아니오 서령 혼즈도라간다흔들 정임이부모 불났도업고 장  
 리신제도 다시희망할바이 업는지라 혼즈말도 허...:저간에 우리두사람이 그  
 러흔 천신만고를지니고 간신히 다시맛난것이 모다허스가 되엿구나하고 목을  
 미여 죽으라고 양복질방을글너막 나무가지에 치겨는판에 별안간 엇던청인  
 십여명이 어제밤모양으로 또달녀드러 죽도라셔는지라 속마음으로 저놈들이  
 또왔구나 오나암만또와도 이제는 괴단업다 어제밤에 지물제앗기고 제집서지  
 일허스니 지금에는 죽이기밧게 더항겟느냐 이왕죽을스름이 죽인디도 두려울  
 것은 업다만은 너의손에 우리네외가 죽는것이 지극히통한다하고 생각할지  
 음에 그중한사람이 고두경례하고 명합한장을 너여쥬며 금안준마를 압헤세우  
 고 말게오르기를 지축하는디 그명합은 정임이명합이오 명합뒤에 연필로두어  
 즈그톡흔말은 천만의외에 부모가이곳에게시니 기분마음은 씩민지성시인지저  
 닳지못항겟스오며 나도역시 무스항오니 아모염녀말고 급히오시오항얏는지라  
 그명합을바다보미 반가운마음에 괴가막혀서 응부모가게셔하는 소리가항는줄  
 모르케 절노나나 마음을진정항야 그스리를 다시싱각하니 한편으로 의심이  
 나서 그러홀이치가 만무흔일인디 이케웬일인고 만일이말이 스설호호면 희한

훈일이라 반가운마음이 다시나서 곳그말을타고 귀에바람이나도록달녀가더라  
 김승지너외와 정임이는 영창이를 다리라보내고 오기를 고되하더니 문밖에서  
 말굽소리가나고 영창이가 지도자를 따라드러오는지라 김승지너외는 정신업  
 서 내려가서 영창이목을안고 얼골을한데되며 내가 영창이로구나하고 대성동  
 곡하는디 영창이는 명함을보고 오면서도 반신반의하다가 참부모가 그곳에있  
 는지라 평성에 철천지원이되던 부모를맞느니 비감한마음이 자연나서 역시부  
 모를 보듬고우니 정임이도 또따라우러 우름환관이 또버러졌다라  
 이씨주인왕씨는 즉시크게 연회를 비설하고 김승지의 가족일등을 위로하는디  
 왕씨가 영창이손을잡고 술을드려 김승지를권하며

(왕) 김공은 이러하아들과 저러하 머느리를 두엇스니 장리의무궁한 향복을  
 밧으시겟소

하는지라 김승자가 그말교되에 되답하느말이

(김) 여년이 몇히아니남은데에 복을밧으면 얼마나밧겟습닛가마는 너가주공  
 의덕력으로 스라나서 런형으로 저것들을 다시보니 그것이신괴훈일이치오  
 그러나 주공씨 잠간엿줄말씀은 내가 주공을피시고 잇는지 십년에이은혜는  
 티산이 오히려가비오니 능히갑출같이 업스오며 그간갑히는 정분은 참아주  
 공을 리별할슈 업습니다만은 서로 죽은줄알던 저것들을맞느니 다시헤여질

마음이 업슬뿐아니라 내가 늙거죽을날을 으지못하는디이오니 이번이 저것  
 들과 훈가자도라가져 몇늘이되든지 부조가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빅골을고  
 국청산에 못고조하오니 존의에 엇더하시오닛가

하며 눈물을흘니디 왕씨가 그말을듯고 흐참침음하더니

(왕) 스정이 그러하시겟소  
 하고 고히장을쳐려 김승지와 그가죽을 전송하는디 천히십리장정에나와 김승  
 지손을잡고

(왕) 김공은 다형히 조제를맞나서 오리간만에 고국을도라가사니 실노 감축  
 훈일이을시다만은 나는십년친구를 일조에리별하니 이것차감충훈일은 다시  
 업소구려

하며 슈티를열고 금화일만원을 너여주며

(왕) 이것이 비록약소하나 너가정의를 표하고조하야 디리는것이을시다형조  
 논필유신이라니 가지고가다가 노조나하시오

(김) 공은 정의로 주신다니 는도정의로 밧어가지고가서 노리쇠호문을 잘조  
 양하겟습니다 만은 우리가 모다늙은데에 훈번리별하면 다시맛는기를 괴약  
 할슈업스니 그것이 지극히비충훈일이을시다그려  
 하며서로보듬고 우러참아늦치못하다 김승지의가족일등은 모다 왕씨 향하

야 빅비스레하고 써나니 왕씨는 션々훈마음을 이기지 못하며 보호자를 보너여  
 정거장까지 호송하더라  
 영총이 너외는 천만의외에 그 부모를 초지미 구경도 더할성각업고 여형도 다서  
 할필요 업셔 즉시 부모를 뵈시고 만주남형초를 타고 서울노도라오며 초속에서  
 영총이논 영총이 소경녀을 이약이하고 정임이는 정임이지니든일을 저서히 말  
 하니 김승지는 저괴역스를 이약이한다

(김) 너 마초산서 그 봉변을 당하고 두주속에 드리안졌스니 늙은이들이 그지  
 경을 당하야 무슨정신이 잇겟느냐 그놈들이 써매고 나가는지 강물로 썩는  
 가는지 누가 견져는지 도모치 몰났더니 아마 그 두주가 강물로 썩는가는  
 디 그 썩맛춤 상마적이 물을 건너와서 노략질히가지고 가다가 그 두주를 맛는  
 미 그사람들눈에는 무엇이든지 모다 저물노 보이논터이라 두주속에 무슨큰  
 지물이나 잇는줄 알앗든지 죽을힘을써서 견져매고 갓나보더라 어느씨나되  
 앳든지 간신히 정신을 초려보니 평성에보지못하던 큰집대청에 우리너외가  
 갓치누엇고 낮모르는 청인들이 좌둘너섯는디 어리와리하는 생각에 우리  
 가 죽어서발서 염나국에 드러와느보다 앳앗더니 그중 엇던사람이 지필을  
 가지고 의셔 필담을 놓자하니 눈은침침하고 잘보이지는 이니하고 손은썩녀  
 글시도 쓸슈업스나 간신히 정신을 슈습하야 통보를하는디 그사람이 곳쥬

인 왕씨더라 그왕씨는 상마적 과수인디 비록 도적질은하나 사름인즉 글이  
 문장이오 뜻이 호화하야 훌륭한 풍류남자요 또런성이 지극히 인조훈사람이  
 더라 그런디 그사람이 나를 엇더케 보앗던지 그씨로브터 극진히 구호하야  
 의복음식과 거처범절을 모다 저괴와 호리가 들너지 아니하게 대접하며 글  
 도 갓치짓고 술도 갓치먹고 바둑도 갓치두고 어티를가도 갓치가니 저연저  
 리가 상할하야 하로잇을지니는디 너의일이 엇지된줄몰는 이가타서 혼시를  
 견달슈업더니 흥신은조유로 못하게 하논고로 리시종의게 편지도 한번못하  
 고 잇다가 어느씨든지 괴회를 엇어 우체로 편지를 한번보쳤더니 다시는  
 소식이 업기에 너의들이 모다죽은줄알고 그후로는 주인도 못치안치 마는  
 는도 도라갈성각이 적어 글억절어지니니 그상하는 마음이야 엇더하겟느냐  
 그러나 모진목숨이 억지로 죽지못하고 두늙은이가 항상울고 오날늘서지부  
 지하더니 천만몽매박게 정임이가 그곳을 왔구는 덩님이 그곳에 온것이 실  
 노다형하게된일이니 덩님이가 그곳에 잡혀오단말이 되는말이나

이렇게 이약이 할스이에 탄환갓치 짜른츠가 어느결을에 밋서 압죽강을건너니  
 총을흔강산이 모다보는디로 식롭더라  
 리시종너외는 정임이부부 신혼리행을 보너미 그길이 오모염녀는 업는길이지  
 만은 두사람은 런업적풍파를 만히맛난 사람들이라 하도여러번 위티흔경우를

지니본터 인고로 어린의 허물싸의 보닌것갓치 근심하다가 회환히온다는 날이  
 되니 잠시가궁금하야 평양까지 내려가서 기다리더니 그씨정임이녀의가 화과  
 가만면하야 오다가 리시중년의를보고 초에나려 인스하는지라 리시중은 그두  
 사람이 잘다녀오는것을 디단히깃버하는씨에 열혀서잇는 사람이 별안간 손목  
 을잡으며 허...즈네 오리간만에 만나보네그려하는디 도라보니 생각도으니  
 흥양는 김승지라 삼작놀나서

(리)즈네이게월일인가...응...디관절 엇지된일인가

(김)우리가 다시못맞을줄알았더니 서로죽지안코 오늘맞는것이 다행훈일이  
 오이못성긴목숨이 스라도라오는것은 이케너복이으니라 우리며나리덕일세  
 흥며 반가온이악이를향고 한편에는 리시중부인과 김승지부인이 서로 붓들고  
 울더니 리시중과 김승지는 가족들을다리고 그길노 곳부벽루에올나가서 그스  
 이지니는 렉스와서로 생각하는정회를 말하며 술잔을들고 도진감담하는디 이  
 씨에 아스할청산과 양스할류수가 모다 그술잔가온디 빚취엇더라

추월석종

愛人의신화	全一册	金四十錢	軍情小說孫麟演義全一册	金三十錢	사랑의무덤	全一册	金八十錢
日鮮書翰文獨習全二册	金七十五錢	歷史小說隋書演義全二册	金五十錢	淮王星洋裝	全一册	金四十錢	
尺牘大成	全一册	鮮漢雙文西廂記全一册	金五十錢	全半裝	全二册	金三十錢	
雪中松	全一册	感義小說江上月全一册	金十五錢	文西漢演義	全四册	金四十錢	
短編古今奇談集全一册	金二十五錢	金山寺夢遊錄全一册	金二十錢	最新日韓唱歌全	集金三十五錢	小	
楚漢風塵鴻門宴	全一册	歷史小說成三問	全一册	金三十錢	小	小	
古代蘇大成傳全一册	金十五錢	悲劇小說百年恨全一册	金三十五錢	新小	全三册	金五十錢	
新小	全一册	義俠小說錦囊二山全一册	金十五錢	小	全一册	金五十錢	
古代增修春香傳全一册	金三十五錢			小	全一册	金二十錢	
歷史小說崔孤雲	全一册			小	全一册	金二十錢	
忠義劉忠烈傳全一册	金三十錢			小	全一册	金二十錢	
陰陽三台星	全一册			小	全一册	金二十錢	
濯世鏡光亭	全一册			小	全一册	金三十錢	
節孝松竹	全一册			小	全一册	金三十五錢	
言情美人圖	全一册			小	全一册	金三十五錢	
婚事美人圖	全一册			小	全一册	金二十錢	
愛情鳳凰琴	全一册			小	全一册	金三十五錢	
古代小說玉樓夢全四册	金二圓			小	全一册	金二十錢	
歷史小說紅衣童子全一册	金三十五錢			小	全一册	金二十錢	
愛情玉樓夢	全二册			小	全一册	金二十錢	
歷史小說太祖大王全一册	金二十錢			小	全一册	金二十錢	

明治四十五年二月廿五日 初版發行  
 昭和三年十月廿五日 廿一版發行

秋月色 定價金二十五錢

編輯者 高裕相  
 發行所 隆文館印刷所

不許複製

印刷者 金聖杓  
 印刷所 隆文館印刷所

愛人의신화 全一册 金四十錢  
 日鮮書翰文獨習全二册 金七十五錢  
 尺牘大成 全一册 金四十錢  
 雪中松 全一册 金十五錢  
 短編古今奇談集全一册 金二十五錢  
 楚漢風塵鴻門宴 全一册 金三十錢  
 古代蘇大成傳全一册 金十五錢  
 新小 全一册 金三十五錢  
 古代增修春香傳全一册 金三十五錢  
 歷史小說崔孤雲 全一册 金二十錢  
 忠義劉忠烈傳全一册 金三十錢  
 陰陽三台星 全一册 金二十錢  
 濯世鏡光亭 全一册 金三十錢  
 節孝松竹 全一册 金三十五錢  
 言情美人圖 全一册 金三十五錢  
 婚事美人圖 全一册 金二十錢  
 愛情鳳凰琴 全一册 金三十五錢  
 古代小說玉樓夢全四册 金二圓  
 歷史小說紅衣童子全一册 金三十五錢  
 愛情玉樓夢 全二册 金二十錢  
 歷史小說太祖大王全一册 金二十錢

戀愛 小說 月世界

價定 錢五十二

집오야 밝은 달은 가을 하날 반공에 두렷이  
니 희이는 새벽에 빛취여 단풍그늘과도가  
머리를질 손등이 고손에는 두기 틀들었스니!

歷史 小說 鰲城奇談

價定 錢五十二

조선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알것입니다. 누구이겠습니?  
도업시 우리로서는 한가지도 예처럼 코달아어 두어야 할기담! 보라! 오성  
부월군의 기담을!

戀愛 小說 花桃花花

價定 錢十三

아주머니 오셨습니?  
가리말하는 아름다운 여자도 화(桃花)는 두쌍에 부초 화꽃이 피었습니!  
미일을 중견애 두고 모든 사람들. 다 각자 저저의 네들의 욕망을 채우나  
고들 하였스니 도희의 운명이었지니 되겠습니?  
이대(二天) 전장! 삼! 삼은 왜하느냐? 참으로 무서운 싸움! 리 팔은, 선  
조예무신(武臣)이 었다 리 팔이 병을 영변(靈邊)에서 일이 커지고 중순장  
주의 귀세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그과제(課)는, 다시 병자란! 여귀에 다 말치  
아나한다 그러나 아무싸움이 조선 사람에게 었다 한영향을 주었겠습니?  
해마다 칠월칠석이면 전우성과 과적녀성이 서로 만났는데 오작교를 건넜다  
는 삼월 삼일이면 신선선장을 남녀가 오작교에서 맞았스니 신선선장은 남  
는 누구이겠습니?  
아! 달콤한 사랑의 추삭아는 이 두남녀!

歷史 小說 李活亂及丙午亂

價定 錢五十三

해마다 칠월칠석이면 전우성과 과적녀성이 서로 만났는데 오작교를 건넜다  
는 삼월 삼일이면 신선선장을 남녀가 오작교에서 맞았스니 신선선장은 남  
는 누구이겠습니?  
아! 달콤한 사랑의 추삭아는 이 두남녀!

戀愛 小說 烏鵲橋

價定 錢十三

해마다 칠월칠석이면 전우성과 과적녀성이 서로 만났는데 오작교를 건넜다  
는 삼월 삼일이면 신선선장을 남녀가 오작교에서 맞았스니 신선선장은 남  
는 누구이겠습니?  
아! 달콤한 사랑의 추삭아는 이 두남녀!

戀愛 小說 梅香

價定 錢十五

메의 향! 달가나 아를 다 음고 고운 일흔이 나 몇했이라 도 불너 보아도 아름다  
운 일흔! 이와 같은 아름다움은 누구이냐? 몇했이라 도 불너 보아도 아름다  
스리가 나 자 교묘한 메의 향이 지게 나우는 한생들 중에 여겨나오는 너 한생 한사람  
이 있스니 이분이 본 소설의 문제인물인 매향이다 보라! 매향의 일편을!

戀愛 小說 情愛

價定 錢五十二

장안 만호들은 압해 내려오는, 남산공원에, 풍채가 초흔년 선사외이  
십이 필러 말라한, 절세미인이었스니 이 두남녀가 었지 않아서 벗어났는  
고아모리 하여도 우리의 보물 것이 다 보라! 애정아 있는 사람이나, 사랑의  
별편으로 해매이 고 있는 사람들이다! 읽으라!!

歷史 小說 太祖大王

價定 錢十二

함경도 영흥군 옥저의 개서 일위 원인이 다 었스니 성은 리요 휘는 성계(威桂)  
니서 려크 원년 천삼백삼십오년고려 충숙왕 후 원자년을 해의 나 었다. 나  
부히려 후하더니 절절 말아 갈사루 그의 눈은 재물고 귀는 크고, 입은  
고 눈은 선은 나고 고 키 크고 힘은 더히 정시나 장차 었더 한 공원. 일년지!

京城南大通門一丁目七十番地

所 滙 東 書 館 振 替 光 電 一 五 五 七 二 番 號